

올해도 인기 만점 '중구 물놀이장'

2017 여름철 자연재난대응 종합계획 운영

문화의거리 주차장 "원도심 주차난 걱정 끝"

'울산큰애기하우스' 개소식



CONTENTS



2017 AUTUMN Vol. 175

발행·편집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발행일 2017. 9. 00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북산동)

Tel. 052. 290. 3270

홈페이지 <http://www.junggu.ulsan.kr>

도심 속 피서지 '울산 중구'

- 04 "무더운 여름 중구물놀이장이 잡았다."
- 06 '원도심 무더위 씻고, 스트레스 날렸다.'
- 08 "성남동서 흥대 클럽 느꼈다."
- 10 태화강변서 열린 '신났다!'
- 12 태화강변, 주민 휴식·놀이 공간으로 변신
- 13 "입화산서 주말 즐기세요~"

중구,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다

- 14 여름 자연재난 대응 준비 '만전'
- 16 중구, 태풍 '차비' 하천 수해복구공사 완료
- 17 "침수 피해 신속히 막겠습니다."
- 18 "수해 아픔 잘 안다... 함께 나눌게요."
- 19 "수해 복구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습니다."



중구, 구민 위해 행정력 ‘집중’



- 20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 전국 지자체 대표회장 당선
- 22 박성민 중구청장, 지방세고지서 모바일 송달 협약
- 24 신세계 백화점, 조속한 건립 필요
- 25 “석유공사 수영장 주민 품으로 되돌려”

- 26 원도심 주차난 걱정 ‘끝’
- 27 “울산큰애기 ‘집’ 보러 오세요~.”
- 28 “울산큰애기아시장, 원도심 상권 살렸다.”

- 30 우리가 본 중구
- 중구뉴스 기자단
- 32 중구의회
- 34 생활정보





“무더운 여름 중구물놀이장이 잡았다.”

동천 하루 최대인원 3,400여명으로 지난해 기록 갱신...복산도 2만여명 다녀가
동천·다전 모두 40%이상 외지인...울산지역 도심 속 피서지로 자리매김
성인들을 위한 '버블&폴 파티' 첫 개최...젊은이 1,000여명 몰리며 인기 끌어

도심 속 피서지로 인기를 끌었던 중구 지역 내 야외물놀이장이 역대 최대 인파가 몰리며 올해도 여전한 인기를 누렸다. 울산 중구청은 지난 6월 20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동천야외물놀이장을 비롯해 지역 내 4곳의 야외물놀이장을 73일간 운영한 결과, 전체 15만3,295명이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76일간의 운영에도 전체 14만5,245명이 방문한 것보다 8,000여명이 늘어난 수치로, 지난 2013년 동천야외물놀이장이 생긴 이래 역대 최다 인원이 입장한 것이다. 야외물놀이장 별로는 동천야외물놀이장이 6만5,94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다천야외물놀이장 4만4,426명, 성안물놀이공원 2만2,460명, 복산물놀이장 2만467명으로 뒤를 이었다.

폭염특보가 발령됐던 지난 7월 16일에는 동천야외물놀이장에 올해 하루 최대 인원인 3,427명이 입장해 지난해 3,316명의 입장기록을 갱신했다. 다천야외물놀이장의 경우에는 8월 5일에 2,434명이 입장해 더위를 식힌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구야외물놀이장에
역대 최대인파
15만3천여명 몰려



동천의 경우 전체이용객 6만5,942명 가운데 40.2%인 2만6,525명이, 다전의 경우 전체이용객 4만4,426명 가운데 59.2%인 2만6,286명이 타 지역에서 온 것으로 집계돼 중구민 뿐만 아니라 외지인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나해에도 동천은 37.9%, 다전은 60.9%가 타 지역 주민들이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된 만큼, 명실상부한 울산지역 내 도심 속 피서지로 자리 잡은 모양새다.

중구청은 지역 내 야외물놀이장이 인기를 끈 이유가 때 이른 무더위와 함께 찾아온 폭염으로 인해 가까운 물놀이장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했고, 각종 시설 개선 등으로 워터파크 수준의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한 것이 이용객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중구청은 올해 야외물놀이장 개장에 앞서 기존에 있던 3곳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옆 복산물놀이장을 조성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동천의 경우 기존보다 1,059㎡ 늘린 6,634㎡로 시설규모를 확대하며 유아용품장을 기존보다 4배가량 늘렸고, 조합 놀이대도 새롭게 단장했다. 또 다전과 함께 야외물놀이장의 풀장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바닥을 고급타일로 교체하고, 인공자사수도 심어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한편, 화장실과 탈의실, 그늘막 등을 정비로 편의시설도 확충했다.

복산물놀이장은 전체 600㎡ 부지에 298㎡ 규모의 조합놀이대와 나뭇잎사위, 버섯과 동물조형, 파고라, 막구조 등을 갖췄고, 지역 내 영유아 등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옆이라는 장점으로 인해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북적였다.

한편, 중구는 지난 8월 5일 울산 지역에서 최초로 동천야외물놀이장을 활용해 성인들만을 위한 '버블&풀 파티'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유명 DJ들이 나서 EDM과 힙합 등의 음악을 믹싱하고, 이에 맞춰 1,000여명의 젊은이들이 춤을 추면서 물총싸움과 물놀이를 벌이는 등 흥겨움 속에 성황리에 진행됐다. 



‘원도심 무더위 씻고, 스트레스 날렸다.’

중구, 원도심서 이틀간 2017년 워터버블페스티벌 개최

남녀노소 3천여명 참여...물총놀이, 버블EDM파티 등 다양한 즐길거리에 ‘열광’

울산 중구청이 원도심에서 진행한 워터버블페스티벌로 시민들의 한여름 무더위와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 버렸다.

중구청에 따르면 8월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성남119안전센터 사거리 일원에서 중구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개최한 '2017년 워터버블페스티벌'에 3천여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젊음의거리 상인회가 주최·주관하고 중구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후원하는 '2017년 워터버블페스티벌'은 2014년 물총축제로 시작해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하는 축제로 무더위에 지친 지역민에게 도심 속 피서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청년들이 중심이 되는 축제 기획으로 청년문화 활성화를 유도하고, 타 지역 관광객 유도를 통해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올해 행사는 지난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우수공동마케팅으로 선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라는 부제에 걸맞도록 물총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눈이 날리는 듯한 느낌의 버블 비중을 대폭 늘려 시원한 여름을 선사했다.

참가자들은 대어 등을 통해 가진 물총에 물을 채워 넣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총을 쏘며 더위와 스트레스를 한꺼번에 날렸다.

신나는 비트의 음악과 함께 대형 거품기계를 이용해 만든 인체에 무해한 버블이 쏟아지는 버블파티에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아이들과 손을 잡고 나온 시민들이 서로 뒤엉켜 즐거움을 더 했다.

김태현(19·북구 양정동)군은 "울산에 이런 축제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생전 모르는 사람과 부딪히며 즐길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신선했다"며 "이번에 대학에 들어가는데 향후 기회가 된다면 이런 축제에 참여해서 운영을 해보고 싶기도 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통 석전놀이에서 영감을 가져 온 버블 석전 '스펀지공 던지기'가 진행되자 아이와 어른할 것 없이 모두가 스펀지공을 던지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메인행사와 별도로 젊음의거리 내에 설치한 킬러존 부스에서 진행한 물풍선 목표물 맞추기, 행운의 주사위게임, 미니 농구 게임 등 상품이 걸린 이색 체험행사에도 사람들이 몰리며 대기 줄이 길게 늘어서는 등 인기를 끌었다.

김은혜(20·남구 삼산동)씨는 "중구 도심 한복판에서 버블이라는 새로운 소재로 이렇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새로웠다"면서 "옆에 부스에서 물풍선 던지기 등 소소하지만 재밌는 체험도 할 수 있어서 여름 주말 좋은 추억을 만든 것 같다"고 말했다.

축제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진행된 댄스팀의 공연과 거리퍼레이드 공연에는 원도심을 찾은 시민들이 발길을 멈추고 함께 하기도 하며, 즐거움을 만끽하기도 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고온의 날씨에 지친 시민들에게 여름날 쉽게 발생하는 짜증과 무더위를 잊게 만드는 행사를 준비하고자 노력했다"며 "도심 속 물놀이 축제를 통해 무더위도 날리고, 스트레스도 푸셨길 바라며, 원도심 곳곳에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가 산적한 만큼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동서 홍대 클럽 느꼈다.”

중구, 호프거리서 댄싱 나이트데이 운영... 방문객 '호응'

오는 11월까지 하우스 뮤직파티 매달 1차례 진행으로 상권 활성화 기여

울산 중구 원도심 내 호프거리 일원이 서울 홍대 클럽으로 변했다.

중구청은 7월 7일 오후 8시부터 호프거리 일원 아케이트 구간에서 원도심 상권활성화의 일환으로 도심 내 야외 클럽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 야외형 클럽인 '성남댄싱 나이트데이'를 운영했다. '성남댄싱 나이트데이'는 지난해 시범 사업으로 운영했던 달빛 옥상콘서트에 이어 진행되는 '도시를 달린다'의 두 번째 프로젝트로 주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획됐다. 행사가 진행되는 구간은 폭 9m, 길이 150m 가량으로 길 양옆으로 각종 음식점들과 주점이 늘어서 있는 곳으로, 현재 젊음의거리 구간 내 유일하게 침체된 포차거리다.

중구청은 호프거리 내 상인회와 협력해 오는 11월까지 매달 한차례 음향장비를 동원해 음악을 틀고, 조명을 비춰 클럽과 같은 분위기로 만드는 '성남댄싱 나이트데이'를 준비해 왔다. 거리 전체를 무대로 사용해 주점과 음식점 손님들이 음악이 흘러 나오면 자유롭게 거리로 나와 노래와 춤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





첫 날인 7일에는 초청 유명 DJ인 '52mm'와 힙합가수 '슈퍼비'가 나서 공연을 진행했으며, 주민과 관광객 등 수백여명이 음악에 맞춰 흥겹게 춤을 추는 등 흥대 클럽 분위기를 연출하며 7월 첫 번째 금요일 밤을 불태웠다.

박재철(24·중구)씨는 "오늘 개최된 성남댄싱 나이트데이는 음악과 함께 서울 흥대앞 거리 클럽 분위기가 물씬 풍겨져 정말 즐거웠다"며 "앞으로 20~30대를 위한 이런 행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젊은 사람들이 성남동으로 많이 찾아올 것 같다"고 말했다. 젊음의 거리 상인회에도 이날 야외테이블을 비치하고, 술과 안주를 합해 9,900원에 판매하는 이벤트, 화장실 무료 개방 등을 통해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8월 25일에는 하우스 뮤직파티인 '성남복고나이트'가 운영됐다. 호프거리 일원의 한 가게에서 진행된 이날 소규모 하우스 뮤직파티에는 200여명의 인파가 몰렸으며, 흥대 클럽에서 밀리터리룩(군복패션)을 하고 믹싱을 펼치는 것으로 유명한 DJ 허조교가 이색적인 뮤직파티를 진행해 참가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김미선(24·남구 신정동)씨는 "지난달 성남댄싱 나이트데이 때 너무 즐겁고 신났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 성남복고 나이트 데이도 친구들과 기대하고 찾아왔다"며 "색다른 공간에서 특별한 EDM파티를 즐길 수 있어 다음달 하우스 뮤직파티도 기대된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중구청은 이날 행사 이후에도 침체된 가게와 공실 등을 매달 1개소 대여해 오는 11월까지 매달 1차례 하우스 뮤직파티를 진행함으로써 주민과 관광객들이 보다 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젊음의 거리 내 유일하게 상권이 위축된 호프거리에 새로운 클럽놀이문화를 확산함으로써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젊음의 거리 전체가 활기를 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구, 8월 25일부터 3일간
'2017 태화강 치맥 페스티벌' 개최

시원한 태화강변서 공연 관람하며
주민 등 13만여명 치맥 즐겨

태화강변서 열린 마지막 바캉스 '신났다!'



“시원한태화강변의바람을맞으며치킨과맥주를함께즐길수있어정말신납니다.”

울산 중구청이 원도심과 태화강변 친수공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마련한 특별한 파티인 '2017 태화강 치맥 페스티벌'에 13만여명의 인파가 몰리며 대성황을 이뤘다.

중구청에 따르면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태화강변에 위치한 성남동 강변 주차장 일원에서 열린 '라스트 바캉스: 2017 태화강 치맥 페스티벌'에 중구민을 비롯해 13만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중구문화원이 주최·주관하고, 중구청이 후원하는 이번 페스티벌은 원도심 일원에서 진행 중인 '울산, 중구로다(中具路多)'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특히, 태화강 고수부지를 친수공간으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문화·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시재생 프로그램사업을 통해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주민과 방문객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이번 페스티벌을 계획했다.

전체 26개의 부스에서는 치킨과 꼬지 등 다양한 먹거리가 판매돼 방문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맥주 업체의 협찬을 통해 기존 475ml 생맥주 1잔에 1,000원에 판매하는 등 저렴한 가격에 맥주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앉아 치맥을 즐길 수 있도록 비어테이블 200개와 인디언 텐트 2개동을 운영했으나 너무 많은 인파가





전체 26개의 부스에서는 치킨과 꼬지 등 다양한 먹거리가 판매돼 방문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맥주 업체의 협찬을 통해 기존 475ml 생맥주 1잔에 1,000원에 판매하는 등 저렴한 가격에 맥주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한 번에 물리면서 뒤통자를 빌려주고, 이를 깔고 강변에 앉아 운치를 느끼며 치맥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았다.

박흥선(34· 남구 선암동)씨는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치맥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다"면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줄이 길다는 단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친구들과 와서 즐기기에 태화강변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 같다"고 즐거워했다. 특히, 3일 동안 모두 각종 축하공연이 이어지면서 볼거리를 더 했다.

첫 날인 25일에는 개막식에 이어 '오리엔탈쇼커스', '썰라티' 등 인디밴드 공연과 '수근', '동후' 등 가요공연, DJ김성태가 진행하는 '추억의 음악다방'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진행됐다.

둘째 날에는 아이돌 가수과 클럽 DJ한민이 진행하는 'EDM 파티'를 통해 젊음세대들이 즐길 수 있는 무대가 마련돼 열정을 불태웠고,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인디밴드 공연과 야외 시네마 극장이 운영돼 한 여름밤의 운치를 느끼도록 했다.

또 3일 동안 음식 많이 먹기, 눈감고 맥주 따르기, 맥주 빨리 마시기 등 각종 시민참여 이벤트가 진행돼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태화강 치맥페스티벌 축제에 참가한 박채원(22· 중구 약사동)씨는 "평소 태화강변에는 즐길거리가 많이 없었는데 이런 축제를 통해 마지막 여름 주말을 기분 좋게 나와 즐길 수 있었다"며 "다양한 부대행사가 있어 가족끼리 참여해도 재미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3일 동안 10만명이 넘는 시민과 방문객들이 태화강변에서 치맥을 즐긴 것은 친수공간인 태화강변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번 행사가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문화·관광 콘텐츠로써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울산 중구 태화동 일원의 태화강대공원은 울산시민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휴식공간이자 놀이공간이다.

이런 태화강대공원 일원에서는 올 여름에도 어김없이 각종 행사가 이어지며 시민들과 휴가를 맞아 울산을 찾는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태화강변, 주민 휴식·놀이 공간으로 변신

8월 11일부터 3일간
2017울산태화강대숲납량축제 열려

‘예술, 새로운 삶을 욕망하라’
도깨비난장 행사도 성황



2017울산태화강대숲납량축제

2017울산태화강대숲납량축제는 지난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구 태화강대공원 야외공연장과 대숲산책로 일대에서 펼쳐졌다.

축제의 메인 행사인 '호러트레킹' 외에도 귀신 코스프레 콘테스트, 호러 의상·가면파티와 베스트 사진전 등의 부대행사와 체험부스도 다채롭게 마련돼 인기를 더 했다. 11일에는 '호러카니발'과 '호러가면 댄스파티'가, 12일에는 '찾아가는 종갓집 문화음악회'와 버스킹 공연, 연극 '태화전설'과 '기차' 등의 다양한 무대가 연이어 열렸다. 13일에는 마당극 '토생이전'과 연극 '우동 한 그릇' 등도 진행됐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입장료를 받았지만 대나무 숲길 240m 구간에서 진행된 '호러 트레킹'은 지옥굴과 죽림미궁, 저승마을, 절단지옥 등의 6개 구간에서 소름끼치는 귀신들을 만날 볼 수 있어 한 여름밤의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 찾은 시민들로 붐볐다.

여름밤 달균 '울산도깨비난장'

(사)울산민예총은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태화강대공원 느티나무광장 일원에서 '예술, 새로운 삶을 욕망하라'는 주제로 제13회 민족예술제 울산도깨비난장을 진행했다. 울산에서 활동 중인 지역공연팀이 참여한 울산도깨비난장은 비보이와 사물놀이, DJ공연, 택견 등 다채로운 문화놀이 한마당으로 진행돼, 울산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시켰다.

첫 날에는 깨비마당에서 울산 싱어송라이터들의 음악축제 싱송페스타 '소풍나온 노래'를 시작으로 개막공연 '예술, 새로운 삶을 욕망하라'와 1987 울산 노동자대투쟁 30주년기념 시극 '염포이야기'를 선보였다.

난장마당에서는 국악한마당 '한여름밤의 축제 I'과 느티나무 영화관 '새들이 돌아오는 시간', '나와 함께 블루스를' 등의 옴니버스 영화를 상영했다.

둘째 날에는 '민족소리원', '얼소리', '춤' 등 뽕내기마당에서 '아마추어 공연'이 이어졌고, 깨비마당에서는 울산달리농악보존회의 초청공연 무대와 국악한마당 '한여름밤의 축제 II', 폐막식 '도깨비난장'이 진행돼 태화강대공원을 찾은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울산 중구의 인기 휴양지인 입화산 참살이 숲 야영장이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주민 휴식공간으로써 한층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중구청에 따르면 입화산 참살이 숲 야영장은 7월 29일부터 오는 11월까지 야영장 중앙 데크 외 일원에서 야영장을 찾은 야영객을 대상으로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은 증가하는 야영수요에 부응해 야영장과 연계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 제공으로 관광자원으로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입화산 참살이 숲 야영장'이 선정돼 추진하게 됐다.

사업은 (사)울산생명의 숲 국민운동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1억원 가운데 국비와 구비가 각각 5천만원씩 투입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숲을 통해 느끼는 작은 힐링!'을 주제로 오감을 이용해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숲체험'과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재미난 '타로점' 등이 마련된다.

숲체험의 경우 가족이 함께 숲속에서 즐기는 숲 속 영화관과 자연 속 가족의 모습을 재미난 모습으로 그려주는 캐리커처, 가족 단위 야영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캠핑요리 경연대회 등이 펼쳐져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더욱 좋아지도록 만들고 있다. 또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숲 놀이와 입화산 야영장에 설치된 그물과 밧줄 등을 활용한 숲밧줄, 숲 속 자연물을 이용해 만드는 자연물 공예체험 등 다양한 체험 놀이도 진행 중이다.

숲 속에 마련된 휴식처 등에서 진행되는 타로의 경우에는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지만 특히, 야영장을 찾은 어른들이 크게 선호하며 높은 참여율과 함께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다. 가간에는 울산대 동아리팀과 업무협약을 통해 별자리를 관찰하고 천문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매직 버블쇼와 장기자랑대회 등의 공연도 이어지면서 야영객들에게 즐길거리를 준다.

본격적인 휴가철인 7월 말부터 8월 20일까지 운영한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만 1,300여명에 이를 만큼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화산 참살이 숲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은 오는 11월 중순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에 진행되며, 입화산 야영장을 찾은 야영객이라면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다. 

“입화산서 주말 즐기세요~.”

중구, 입화산 참살이 숲 야영장
활성화프로그램 운영

운영 19일만에 1,300여명 이상 참여...
오는 11월까지 누구나 이용가능



 울산
생명의숲
www.usforest.or.kr

세부 프로그램 안내 및 변경일정 확인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7월29일 ~ 11월30일
입화산 참살이숲 야영장
중앙데크 외 시설

여름 자연재난 대응 준비 '만전'

중구, 2017 여름철 자연재난대응
종합계획 운영

배수장 인력 보강, 재해취약 우려지역
선정 및 관리 등

태화·우정 등 지난해 태풍 '차바' 교훈
중장기 대책도 수립



지난해 태풍 '차바'의 내습으로 인해 대규모 피해를 입었던 울산 중구청이 올해 여름철 자연재난대응을 위한 준비를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피해가 컸던 태화·우정지역의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하는 등 향후 대규모 자연재난 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구청은 올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난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지난 5월 10일부터 '2017년 여름철 자연재난대응 종합계획'을 수립,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2017년 여름철 자연재난대응 종합계획'은 올 여름 자연재난대응 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집중호우 등을 대비한 자연재난대응 세부시행 계획으로, 자연재난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과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수립했다.

종합계획에는 ▲배수펌프장 및 나들문 인력보강·운영 ▲재해취약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 구축 ▲양수기 배치와 담당공무원 지정·운영 ▲침수예상지역 차량이동과 진입통제 ▲긴급 재난안전문자 가입 독려와 우수받이덮개(고무판) 제거 홍보 ▲성남·옥성나들문 점검과 관리계획 수립 등이 포함됐다.

중구청은 먼저 이 기간동안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배수장 보강인력으로 전체 14명을, 성남과 옥성 두 곳의 나들문에 각각 2명의 인력을 보강했다.

배수장 보강인력은 호우경보나 태풍주의보 등의 기상특보가 발령 시 상황판단 후 인력보강이 결정되면 태화, 옥교, 학성, 내항, 서원, 산전 등 8개소의 배수장, 9명의 근무자와 함께 현장 근무를 벌인다.

성남과 옥성 나들문의 보강인력은 기존 보다 0.3m 낮은 평균해수면 2m 이상 또는 태풍 및 호우경보 시 교통통제와 복강판 제거 등을 지원하며, 30분 이내에 나들문을 닫는 역할을 맡게 된다.

배수장의 경우 기계와 전기, 비상발전기와 제진기 등 기능별로 긴급보수 업체를 지정, 호우와 태풍 시 신속한 보수를 벌일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앞서 올 3월에는 중구 관내 취약지역과 피해사례 위주의 현장조사를 통해 동동과 태화, 우정 등 3곳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비롯한 8곳의 재해취약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순찰과 출입통제, 주민대피 등의 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관리책임자는 각 지역 동장과 공무원, 경찰과 통장, 지역자율방재단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시간당 30mm 이상 또는 하루 100mm 이상 강우량을 기록할 경우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나 마을앰프시스템 등을 활용해 주민들을 대피시킨다.

또 호우주의보나 경보 등 호우특보 발령시 주민들이 8곳의 재해취약 인명피해 우려지역에서 통행하는 것을 제한한다.

중구청은 관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양수기 104대를 추가 구입해 총 140대를 보유 중에 있으며, 양수기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집중호우 등을 대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가동훈련을 벌였다.

7월 27일에는 태화시장에서 현장대응 훈련의 일환으로 실제가동훈련을 벌여 침수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현장 투입과 배수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역량도 키웠다.

태풍 차바 내습 시 태화강 고수부지 등에서 차량침수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성남둔치와 태화둔치 등 차량침수 예상지역에 대해 기상 파악, 차량대피 홍보, 진입통제, 침수차량 견인 등 4단계로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침수우려 주차장 관리자 39명(공영주차장 32, 저지대 공동주택 5, 하천둔치 2)을 전담인력으로 배치했다.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는 39개의 긴급 재난안내문자 가입 독려 현수막을 설치하고, 지난해 태풍 차바 침수피해 주민 2,662명에게 재난문자 가입을 독려했으며, 주택가 등에 침수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 역할과 중요성 등을 재난문자 전광판과 반상회 홍보물 등을 통해 홍보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태풍 차바 내습 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태화·우정시장의 경우 해당 지역 주변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고, 배수펌프장 등을 설치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는 등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태화강대공원 조성 시 건설된 동강병원 앞 기존 태화배수장이 저지대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한 용량 증설과 우수지 확장을 위해 국비 10억을 지원받아 내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또 지난 6월 14일 산전배수장의 이전·증설을 통해 기존보다 분당 100톤 이상 배수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동동지역의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이 지역의 침수예방 효과를 높였다.

중구청 관계자는 "최근 울산 중구지역에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안전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여름철 돌발성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한 양수기 가동훈련을 비롯해 각종 대응훈련 실시로 구민의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중구, 태풍 '차바' 하천 수해복구 공사 완료

26억여원 투입해 태화강 등
지역 내 11개 하천 복구

띠발교 재가설 공사는
11억원 들여
2018년까지 지속

지난해 10월 '태풍' 차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울산 중구지역 내 하천 11개소에 대한 수해복구공사가 완료됐다.

중구청은 지난해 태풍 차바로 인해 피해로 입은 태화강과 약사천, 척과천 등 모두 11개 하천, 총 연장 9.7km에 대한 수해복구공사를 6월 8일 모두 마무리했다.

복구공사에는 국비 13억2,000만원, 특별교부세 4억8,000만원, 시비 6억3,000만원, 구비 3억3,000만원 등 총 27억6,000만원이 투입됐다.

지난해 태풍 차바 내습 당시 중구지역 내 하천들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시간당 124mm의 유래 없는 물폭탄이 쏟아짐에 따라 제방이 무너지고 농경지가 유실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

중구청은 이에 따라 유사한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올해 우기 전 조기에 사업을 완공하고자, 예산이 편성되기 전인 지난 11월부터 실시설계를 시작했다.

복구공사는 11개 하천 9,677m 구간의 실시설계 용역을 마친 뒤 태화강 호안 320m 구간 정비를 비롯해 성안천과 약사천, 척과천과 성동천, 장현천과 입하천 등 지역 내 9개 하천 제방복구, 동천 CCTV 1개소의 보수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공사 구간을 여러 개로 나눠 공사업체를 분산해 투입함으로써 우기 전인 8까지 전체 피해 구간의 복구를 완료했다.

태풍으로 끊어졌던 중구 다운동 소재 띠발교는 11억3,3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미 공사를 지속하고 있으며, 오는 2018년 준공할 예정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이번 수해복구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그 동안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그린벨트 내 열악한 하천이 부분적으로나마 정비돼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천 정비를 통해 수해를 예방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집중호우 시 침수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 오후 2시 울산 중구 태화동 리버스위트 뒤편 태화시장 일원.

50여명의 남성들이 무더운 날씨에도 포터에 실어온 6인치 양수기 2대와 태화동 주민센터에서 가져온 5인치 양수기 3대의 설치에 분주했다.

2.5톤 살수차량이 현장에 들어오자 남성들은 양수기들의 흡입호스를 연결한 뒤 외부로 토출호스를 펼쳤고, 이내 굵은 물줄기가 시원하게 쏟아지며 더위를 날렸다.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현장에서 살수차량과 양수기를 운영한 이들은 중구청 양수기 담당자 등 공무원 20여명과 지역자율방재단 30명.

이들은 울산 중구청이 지난해 태풍 '차바'와 같은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발생을 대비해 지역자율방재단과 함께 벌인 현장대응훈련에 참여해 실전과 같이 대처했다.

이날 훈련은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기상 상황을 통해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저지대 침수피해 발생 시 대형 양수기를 신속히 투입해 배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됐다.

중구청은 호우경보 발령 시 서원배수장에 비치된 2대의 6인치 대형 양수기를 차량에 실어 침수 상황발생 지역에 급파하고, 태화동과 우정동 주민센터에 배치된 각각 3대의 5인치 양수기를 태화·우정시장 일원에 이동시켜 배수활동을 벌이도록 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 이용된 5인치와 6인치 양수기는 물높이가 1m 수준일 때 1분당 각각 2,300ℓ와 6,000ℓ의 물을 퍼낼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훈련에 참여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원들은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상황 발생 시 양수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정확히 익힘으로써 향후 지난해 태풍 '차바'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최근 중구청 전 직원들을 상대로 양수기 가동 훈련을 진행하는 등 역량을 강화해 집중호우에 대비한 만전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면서 "이번과 같은 양수기 실재가동 훈련을 통해 민간에서도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해지면 침수 피해를 더욱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침수 피해 신속히 막겠습니다.”

중구, 태화동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현장대응훈련 실시

2.5톤 살수차 이용
실제상황 연출...
6인치·5인치 대형 양수기
5대로 대처





“수해 아픔 잘 안다... 함께 나눌게요.”

박성민 중구청장,
지역 주민들과
청주 폭우 피해
지역 방문

직원 끝전 모은
성금 300만원 전달...
피해복구 활동도 펼쳐



울산 중구청과 지역 주민들이 최근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청주 지역민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후원금을 전달하는 한편, 지난해 태풍 차바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뒤 전국에서 도움을 받았던 태화시장 상인들도 피해복구에 나서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

박성민 중구청장과 직원 20여명, 자율방재단과 바르게살기, 새마을과 자유총연맹 등 지역 봉사단체 회원, 태화시장상인회 회원 등 80여명은 7월 19일 오전 전주페이퍼 청주공장을 방문해 수해피해 복구지원에 참여했다.

이날 폭우 피해 복구는 지난해 태풍 차바의 내습으로 인해 수해를 입었던 울산 중구가 비슷한 경험으로 힘들어하는 청주시를 돕기 위한 것으로, 당시 받았던 사랑과 고마움을 다시 전하기 위해 추진됐다.

청주시는 지난 16일 폭우로 290mm의 비가 쏟아지면서 인명 피해는 물론, 주택 침수와 제방 붕괴 등 각종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준비한 방재단 조끼와 장화, 장갑 등을 착용하고, 전주페이퍼 청주공장 인근에 대단지로 설치됐었던 비닐하우스 단지에서 무너진 비닐하우스를 세우고 치웠다.

또 무더위로 인해 비닐하우스 내부에서 썩어가던 애호박 등 각종 채소를 외부로 빼내 정리하고 치우는 작업도 벌이며, 구슬땀을 흘렸다.

피해복구 활동에 참여한 태화시장상인회 박문점 회장은 “최근 폭우로 인한 피해 현장을 와보니 지난해 태풍 차바 당시 느꼈던 막막함을 또다시 마주하는 듯 했다”면서 “그때 전국에서 보내준 많은 도움과 사랑들이 태화시장 상인들이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었던 만큼 이곳에서 우리가 받았던 사랑과 도움을 다시 건내기 위해 찾았다”고 말했다.

박성민 중구청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청주시청을 방문해 직원들의 월급 끝전인 우수리로 마련된 후원금 300만원을 피해 복구에 사용해 달라며 건네기도 했다.

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서 협의회 자체 예산으로 마련된 재난재해구호비 500만원도 전달해 피해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눴다.

박성민 중구청장은 “최근 수해로 인해 집과 일터를 잃은 청주시민들이 어떤 마음일지 지난해 태풍 차바의 피해를 입은 경험상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며 “당시 도움의 손길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필요한 것인지 느껴 빠르게 피해복구를 지원하고자 주민들과 한 마음으로 청주를 찾은 만큼 피해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수해로 인해 생활터전을 잃어버린 청주지역 수재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작은 힘이라도 보태려고 합니다.”

7월 21일 오전 7시, 울산 중구청사 내 주차장에서는 40여명의 남녀가 대형버스에 장화와 장갑, 수건 등을 신기 위해 분주했다.

이들은 울산 중구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된 자원봉사자들과 중구청 직원들.

같은달 16일 하루 최대 300mm의 폭우가 쏟아지며, 6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청주지역의 피해를 복구하는데 한 팔이라도 거들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준비에 나섰던 것이었다.

이들은 지난해 태풍 ‘차바’로 인해 큰 피해를 겪은 울산 중구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피해 복구에 참여했던 만큼 수해민들의 아픔과 복구지원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도움을 주고자 생업을 제쳐두고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지역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쳐오다 이날 피해복구에 참여한 박경흠(41)씨는 “지난해 태풍 차바로 중구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을 때 심정이 아마 지금 청주시민들의 마음일 것”이라며 “당시 상황을 잘 아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참가 이유를 밝혔다.

이날 참가자들이 방문한 곳은 지난 19일 박성민 중구청장과 지역 봉사단체들이 함께 복구 작업에 나섰던 충북 청주시 오송읍 전주페이퍼 청주공장 인근에 형성된 비닐하우스단지. 이들 전 박성민 중구청장과 봉사자 등 80여명의 손길이 닿았던 지역이지만 폭우 피해가 컸던 탓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로 하는 곳은 많았다.

비닐하우스 안이라 기온이 높은 가운데도 피해복구 참가자들은 평소 오랫동안 자원봉사를 벌여온 만큼 능숙한 손놀림으로 비닐하우스 내 물에 잠겼던 채소들을 수거하고, 밖으로 빼내 버리는 작업을 진행했다.

특히, 참가자 전원이 지난해 태풍 차바 당시 대규모 수해복구 현장에서 오랜 시간동안 봉사활동을 펼쳤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복구에 나서 일의 효율을 높였다.

이날 중구 자원봉사자들이 정리한 비닐하우스는 오이와 호박을 키웠던 곳들로 모두 9개 동을 정리했다.

피해 농가주인 심재용씨는 “수해로 인한 피해로 너무 막막한데 무더위도 마다하고 복구에 도움을 줘 정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수해 복구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습니다.”

중구지역 자원봉사자 40여명,
청주 수해지역 피해복구 참여

쓰러진 비닐하우스 철거,
내부 채소 등 청소..
수재민과 아픔도 나뉘





Interview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 전국 지자체 대표회장 당선

- 울산지역 최초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에 선출
- 박 청장 등 공동회장단 김부겸 장관 만나 중앙-지방 간 상생·협력안 논의
- 지방자치 및 분권 강화 활동 추진, 헌법 개헌, 지방재정 확충 등 지방자치시대 열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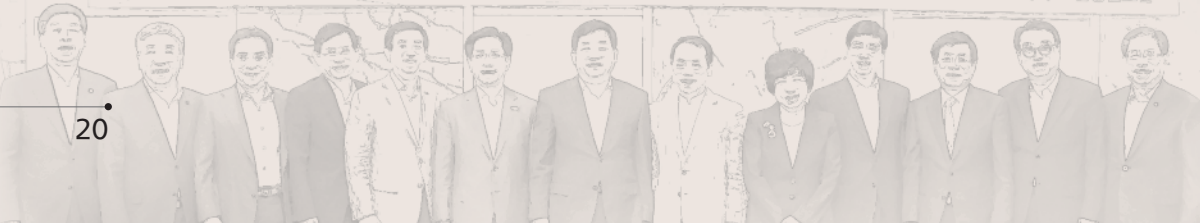
울산에서 정치활동을 이어왔던 박성민 중구청장(57)이 지역 최초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대표회장에 선출됐다.

박성민 신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도록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분권 개헌에 모든 활동의 방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로는 지방자치 실현이 어렵고,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도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실질적 지방자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선6기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해 1년간 활동을 벌이게 된 것인만큼, 그 의미와 향후 활동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일 시 | 2017. 7. 3.(월)
장 소 | 여의도 컨벤션호텔





울산 최초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소감과 각오는 ——— 전국통과 규모를 자랑하는 유수의 지역 단체장들이 많음에도 비교적 젊은 도시 울산, 그중에서도 작은 기초단체인 중구청장을 대표회장으로 뽑아준 단체장들께 감사드린다. 지난 3년간 협의회 대변인과 사무총장으로서의 활동은 물론, 최근 울산 중구의 모습을 좋게 평가해 준 것 같다. 영광스러운 마음 한편으로 부담도 크지만, 지역과 이념, 정당 등을 초월해 전국 226개 시·군·구의 목소리를 대변해 풀뿌리 지방자치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국가 질서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협의회를 이끌어 가겠다. 무엇보다 시장, 군수, 구청장들의 역량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어떤 조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의 공동문제를 협의하고, 지방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1999년에 설립됐다. 출범 이후 중앙집권적 행정시스템과 제도 개선, 중앙정부와의 협력, 지자체 교류 등을 위한 활동들을 벌여왔다. 전국 226개 기초단체장이 모두 참여해 지방자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국민의 대변인 역할을 통해 정부에 의견을 개진하거나 관련 법률 제·개정 등에 대한 요구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한다.

민선 6기 4차연도의 핵심 과제는 지방분권 개헌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성과와 한계는 ———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다. 그동안 한일월드컵과 G20 정상회담 개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등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자치 수준은 여전히 2할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2 수준이지만, 실제 세출을 고려하면 6대4로 지방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지방정부는 재정 부족분을 중앙의 교부금이나 보조금에 의존하게 돼 재정 자립도는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지역 현안을 적기에 시행하기 어렵고, 지역민을 위한 복지지출도 축소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제약하고 있어 이대로는 지방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업무에서도 지방정부가 주민과 지역을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해 중앙정부가 간섭하는 일이 많아 행정의 비효율이 심각하다. 이에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구체적인 제도와 권리로 실질적 지방자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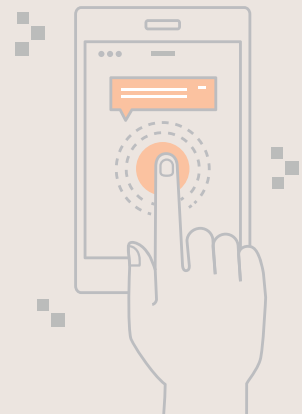
대표회장 임기 중 역점 사업은 ——— 지방분권 개헌의 완성이다. 중앙집권적 비효율을 혁신하고 지방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해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도록 협의회 의견을 모으고, 중앙정부와 국회, 국민의 광범위한 참여와 공감을 끌어내 과감하게 추진하겠다.

구체적으로는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라는 조항을 넣을 것이다. 지방정부의 헌법기관 인정, 자치법률 제정권 보장, 자주재정권 확보, 지방 4대 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의회 설치 등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박성민 중구청장, 지방세고지서 모바일 송달 협약

- 행정안전부, 8개 은행, 금융결제원 등과 전국 자치단체 협약식 체결
-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참여은행 모바일앱 통해 확인·납부 가능
- 주민 납부편의 증진...전국 지자체는 주요 재원인 지방세 안정적 확보 기대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서 정부와 함께 지방세를 모바일로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박성민 중구청장은 지난 7월 21일 행정안전부 12층 CS룸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흥모 금융결제원장, 국민·농협 등 8개 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고지서 금융앱 송달 업무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성민 중구청장 등 참석자들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모바일앱 송달 시연을 체험한 뒤 기념촬영을 벌였다.

이번 협약은 종이 고지서 우편송달의 한계를 극복하고, 스마트폰 이용의 보편화에 따라 송달 서비스를 혁신하며, 금융과 IT 기술이 결합한 Fin-Tech산업의 선도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주민들의 지방세 납세편의를 증진시켜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인 지방세를 연체없이 적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체 재원의 원활한 확보가 가능하도록 돕기 위해 진행됐다.

지금까지 지방세는 종이 고지서나 위택스 사이트 접속을 통해서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했다. 이로 인해 전체 지방세의 95%가 종이로 고지되면서 연간 8,500만건이 발송돼 346억원의 비용이 투입되고 있으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 잦은 이사 등으로 등기우편 고지서 4건 가운데 1건이 반송되는 등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또 고지서 분류와 인쇄, 접수와 배달을 위해 총 6일 가량이 걸려 과도한 시간과 인력이 소모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며, 빈번한 고지서 도난과 분실에다 고지서 상의 신상과 재산정보의 노출 우려도 컸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의 91%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60대 연령층의 사용율도 62%나 이르는데다, 20대 연령층의 모바일고지 이용희망이 66%나 되는 조사결과에 근거해 지난 1월부터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송달을 추진해 왔다.

이날 행정안전부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의 협약으로 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스마트폰을 가진 모든 국민들은 별도 앱 설치 없이 평소 이용하는 은행앱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해당 은행앱을 통해 납부도 가능하다.

이용 가능한 지방세 대상은 8월 주민세부터다. 고지서를 받을 수 있는 은행은 농협·국민·신한·하나·기업·대구·부산·경남은행 등 8곳으로 이들은 올해 1월부터 9차례의 시범테스트를 거쳐 모두 서비스를 탑재한 상태다.

행정안전부는 4개월 간의 시범기간(8월 주민세~12월 자동차세, 종이고지서 병행) 동안 납부편의 증진효과와 정보보안 등을 분석한 후 참여은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울산 중구청이 발부한 지방세 정기분은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과 등록면허세 면허분 등 전체 40만 3,718건에 558억2,100만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납기를 넘겨 연체된 것은 8만5,526건에 81억5,500만원 규모나 된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은 "지방세는 지방재정분권의 핵심재원으로 전국 지자체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근간"이라며 "이번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송달과 납부 시행으로 주민들의 지방세 납부 시 감수해야 할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어 지방세 연체를 막아 적기에 지방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세계 백화점, 조속한 건립 필요

- 중구, 신세계백화점 조기건립 관련 간담회 개최
- 지역 경기 활성화 위한 촉구 건의서 전달... 적극적인 지원 약속

울산 중구청이 혁신도시에 입점을 예고한 신세계백화점의 조속한 건립을 사촉에 건의하고 나섰다.

중구청은 7월 13일 2층 소회의실에서 신세계백화점 조기건립을 위해 (주)신세계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중구청에서는 박성민 중구청장을 비롯해 간부공무원과 서경환 중구의회 의장, 권태호 중구의회 부의장 등 7명이, (주)신세계 측에서는 신규개발담당 권상근 상무와 정건희 상무, 이준호 신규개발 담당부장 등 백화점 입점을 담당하는 주요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구청과 (주)신세계가 지난해 2월 울산 우정혁신도시 내 백화점 입점과 관련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이은 것으로, 신세계백화점의 조속하고 원활한 건립을 위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성민 중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우정혁신도시 내 건립 예정인 신세계백화점의 조기건립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주)신세계 측에 전달했다. 박성민 중구청장은 건의서를 통해 "현재 중구는 원도심 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마두희 축제 등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로 '2019 올해의 관광도시'에 선정돼 울산의 문화·관광도시로써 진면목을 갖춰가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우정혁신도시는 석유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대규모 아파트와 오피스텔 건립 등 각종 투자사업이 진행 중이며, 옥동-농소 간 도로개설 등 혁신도시 접근성 편의를 위한 교통망도 확충되고 있다"며 "이때 신세계백화점이 건립을 추진한다면 주민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큰 활력이 되고, 신세계 측도 투자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신세계백화점 조기건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이를 위해 중구청이 신세계백화점의 원활한 건립을 위해 교통 체증 완화에 필요한 백화점 진출입로 추가 확보 등 관련 행정 절차이행이나 인·허가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며 "대 주민 홍보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백화점 조기건립 추진을 요구했다.

박성민 중구청장은 "울산의 신도시로 부상되고 있는 우정혁신도시에 신세계백화점이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되면 지역경기 활성화와 주변 정주여건이 개선돼 문화 중구의 위상이 올라가고, 신세계 측에도 무한한 투자 가치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인 만큼 백화점 조기건립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 중구, 한국석유공사 수영장 운영권 협약 체결
- 중구도시관리공단 위탁 운영...
오는 10월 개장 목표
- 월 이용료 6만 5,000원선 될 듯...
테니스장도 이용 가능

“석유공사 수영장 주민 품으로 되돌려”

울산혁신도시 내 한국석유공사의 수영장이 울산 중구청과의 협의 끝에 준공 3년여만에 주민들에게 개방하게 됐다. 중구청은 7월 25일 한국석유공사에서 박성민 중구청장과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개방 체육시설 위탁운영관리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2014년 10월 한국석유공사가 60여억원을 들여 사옥 내 체육시설인 수영장과 테니스장을 준공한 이후 운영 시 발생하는 적자 등으로 인해 운영하지 못하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 동안 중구청과 한국석유공사는 주민개방형으로 조성된 수영장과 테니스장을 개방하기 위해 수 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수영장 운영 시 발생하는 13여억원의 예산부담을 문제로 쉽게 해답을 찾지 못했다.

그러던 가운데 한국석유공사가 올 1월 경영정상화 노력의 일환으로 본사 사옥을 매각하자, 중구청이 수영장을 직접 운영하기로 결정하면서 최근까지 운영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해 이날 결실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한국석유공사는 사옥 외부 부지 4,140㎡에 조성된 지하 1층 수영장 25m 8레인과 지상 테니스장 3면, 지상 주차장 37면을 중구청에 3년간 위탁하게 된다. 협약이 만료되기 3개월 이전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 1년씩 자동 연장된다.

또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에 대한 연간 임대료 5억원 상당은 한국석유공사가 일체 부담하고, 그외에 운영과 관련된 비용과 통상적인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수탁자인 중구청이 책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중구청은 체육시설의 관리 업무를 중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한 뒤 회원 1,500명 규모에, 월 이용료 6만5,000원으로 책정해 연간 적자폭을 5억원가량 줄이고, 운영 인력 최소화과 공공요금 절감 등을 통해 추가로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테니스장의 경우에는 중구청이 기존에 제정한 조례에 따라 1면당 3시간에 5,000원, 월 1만5,000원 선에서 대여할 계획이며, 관리는 중구도시관리공단이 맡게 된다.

중구청은 협약식 이후 관련조례 개정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확보와 시운전 등을 거쳐 오는 10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원도심 주차난 걱정 '끝'

- 중구, 문화의거리 주차장 준공... 237면 확보

- 옥교공영주차장 증축으로 전체 572면 운영...무인시스템으로 정산 편의 ↑

울산 중구청이 원도심 내 문화의거리 주차장의 준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또 중앙전통시장 인근의 옥교공영주차장도 증축을 완료해 원도심 일원의 주차난이 해소될 전망이다.

중구청은 9월 20일 중구 옥교동 238-1번지 일원에 위치한 문화의거리 주차장 1층에서 박성민 중구청장, 시·구의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 문화의거리 주차장은 대지면적 3,408㎡, 연면적 4,419㎡에 지상 3층, 4단으로 1층 65면, 2층 65면, 3층 56면, 옥상층 58면 등 전체 237면의 주차공간을 갖췄다.

특히, 전통 건축양식인 누각을 진출입로로 조성함으로써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재구성했고, 주차장 내부는 친수공간과 중정, 조경시설을 갖춰 자연 채광과 환기를 유도하는 등 친환경 주차장으로 만들었다.

또 주차장 바닥은 콘크리트 노출면상에 표면강화제로 시공해 소음발생을 최소화 했고, 조명은 주변의 주택과 상가에 영향이 없도록 광도와 각도를 조정해 불편을 줄였다. 이외에도 모든 주차면에 주차감지센서등이 부착돼 주차장 이용고객이 멀리서도 주차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원도심을 찾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옥교공영주차장의 경우 전체 39억원의 예산을 투입에 기존 대지면적 4,516㎡에 3층 4단 392면 규모에서 연면적 1만 5,576.21㎡ 규모, 5층 6단 572면으로 180면 늘렸다.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내진설계를 반영하고, LED조명을 설치해 전기 이용량을 줄였으며, 다른 주차장보다 넓은 확장형 주차면을 적용해 운전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주차할 수 있도록 시공했다.

두 주차장은 모두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해 무인 주차요금 정산시스템이 도입됐다. 무인 주차요금 정산시스템은 별도의 주차권 발행없이 입차 시 인식된 차량정보를 이용해 출구의 무인정산기나 사전정산기를 활용해 요금을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신용카드와 교통카드, 현금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 중구청, '울산큰애기하우스' 개소식 개최
- 외국어 통역 등 관광안내소, 캐릭터 상품 매장 등의 역할 맡아
- 동화 속 공간인 '울산큰애기의 방' 포토존 등으로 중구 명물화 할 것

“울산큰애기 ‘집’ 보러 오세요~.”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울산 중구를 알리는 캐릭터인 울산큰애기의 '집'이 문을 열고, 본격적으로 주민과 방문객 맞이에 나섰다.

중구청은 8월 25일 중구 원도심 문화의거리 일원에 위치한 '울산큰애기하우스'에서 박성민 중구청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개소식은 테이프커팅에 이어 울산큰애기와 함께 시설 라운딩을 벌였으며, 특히 울산큰애기의 방이 있는 2층에서 큰애기 싸인회와 플라로이드 기념촬영도 진행돼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싸인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울산큰애기' 캐릭터 상품과 큰애기 방 등에 큰 관심을 보이며 "울산큰애기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릭터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4억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돼 준공된 울산큰애기하우스는 연면적 196.32㎡, 3층 규모로 '울산큰애기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울산큰애기하우스 외벽에는 울산큰애기가 두 손을 활짝 펼치며 방문객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조형물 등이 설치돼 있어 방문객의 눈길을 끈다. 1층에는 문화의거리와 십리대숲, 태화강대공원과 태화루 등 중구 지역 내 다양한 관광지와 볼거리, 즐길거리 등에 대한 맞춤형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관광안내소가 마련됐다.

이곳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등 주요 외국어 통역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울산큰애기' 캐릭터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거울과 파우치, 방석과 쿠션, 동전지갑과 무릎담요, 보조배터리, 다이어리 등의 학용품과 악세사리 등을 판매하는 상품 판매점도 설치돼 운영된다.

2층은 '울산큰애기 방'이라는 컨셉으로 소녀들의 판타지를 구현한 동화 속 공간으로 꾸며져 방문객들에게 이색볼거리를 제공하고 포토존으로도 활용된다. 3층은 정보검색대와 회의실 등을 갖춰 도보 관광객을 위한 쉼터이자 문화의 거리 작가 등 문화예술업 종사자들의 비즈니스룸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울산큰애기하우스는 연중무휴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된다. 

“울산큰애기야시장, 원도심 상권 살렸다.”

- 6월 현재까지 220만여명 방문...매대 수입만 19억원 상당
- 인근서 외식, 쇼핑, 영화관람 등으로 원도심 경제적 파급효과 300억 넘어
- 원도심 관광자원 및 고객층 다양화, 방문자 증가로 기존상가 운영시간 연장
- 빈점포 줄고, 건물 거래 느는 등 시장가치 높아져... 70여명 일자리도 창출



지난해 울산지역 첫 정부 지정 야시장으로 중구청이 야심차게 문을 열었던 울산큰애기야시장이 원도심 상권을 크게 활성화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청은 지난해 11월 11일 중구 중앙전통시장 내 개장한 울산큰애기야시장 운영에 따른 중앙전통시장과 원도심에 미치는 성과를 5월 19일부터 2주간 자체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침체를 이어온 전통시장을 살리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울산큰애기야시장의 운영 이후 중앙전통시장과 원도심에 미치는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운영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적으로는 300억원이 넘는 파급효과를 거뒀고, 비경제적으로는 원도심 고객층의 다양화와 중앙전통시장 방문인원 증가, 신규점포 입점과 부동산 거래 증가 등으로 원도심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월요일 새벽 1시까지 6일간 운영되는 울산큰애기야시장은 개장 이후 올 6월 18일까지 전체 36개 신규 판매대(먹거리 35개소, 상품 1개소)에 56만2,326명이 방문해 18억9,160여만원 상당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여기에 울산큰애기야시장 개장으로 인해 원도심을 찾은 방문객이 외식, 쇼핑, 영화 관람 등으로 소비하는 금액이 1인당 1만5,000원 정도며, 원도심 방문에 따른 교통비와 주차비 등을 포함할 경우 실제 경제적 파급효과는 같은 기간동안 333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중구청은 추정했다.

특히, 야시장 조성과 운영에 소요된 예산이 2016년에 11억4,200만원, 2017년 6월 18일까지 1억3,600만원인 것과 비교해 볼 때 야시장 운영으로 원도심 경제에 미친 가성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전통시장의 방문인원이 늘어나면서 인근 상가들도 영업시간과 휴일을 변경하는 등 변화에 발맞춰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시장 개장 이후 1구간은 35개 점포 가운데 24곳이 기존 오후 7시까지에서 오후 9시 이후까지로, 2구간은 32곳의 점포 가운데 20곳이 오후 6시 30분에서 오후 9시까지로 영업시간을 늘렸다. 또 주 1회 휴일을 운영하는 점포 5개소 중 4개소가 야시장 휴장날인 월요일로 휴일을 정했고, 시장 산악회 산행일도 월요일로 정해 휴무일을 변경하는 등 야시장 운영에 맞춰 영업을 벌이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야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빈 점포도 4개소가 신규로 개업하고, 3개 점포는 새로운 고객층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식당과 카페 등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효과도 발생했다.

울산큰애기야시장이 추진된 2016년 7월 6일을 기점으로, 전후 1년을 비교해 볼 때 야시장 판매대가 위치한 주변 상가의 거래 횟수가 5회에서 8회로 66% 늘었고, 건물 전체가 거래된 경우도 이전에는 화재로 인한 1건에서 야시장 기대감에 따른 2건으로 증가하는 등 시장가치의 향상으로 지역의 부동산 거래도 좋아졌다.

이외에도 울산큰애기야시장은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고, 평균 매출에 비해 점포 임대료 등 유지비도 적어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2013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평균 창업비용은 7,257만원, 월 매출은 877만원, 월 수익은 187만원이나, 울산큰애기야시장의 경우 200만원 이내의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해 월평균 769만원 상당의 매출과 점포 임대료 등 유지비용도 적게 소요되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당초 야시장 개장 시 36개 판매대가 운영되면서 운영자와 보조자, 청소인력 등 전체 98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고, 운영 7개월이 지난 6월 현재 28개 판매대의 운영자 28명과 보조자 39명, 청소인력 4명과 야시장 운영자 1명 등 72명의 일자리가 유지되고 있다. 이를 기업으로 비교하면 소기업 7개를 유지한 효과와 같은 수치라고 중구청은 평가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울산큰애기야시장 개장으로 인해 원도심 전체의 상권이 살아나고, 점포들도 활기를 띠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각종 이벤트 유도과 자립 분위기 조성, 문화공연 등으로 인한 볼거리 강화, 지속적인 홍보로 관광자원화를 추진하고, 인근 상가 냄새 등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해 중구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이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박상태 기자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서 출산장려금, 출산용품 지급 등 다양한 시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출산과 육아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경제적 부담과 성장과정에서의 정부와 사회의 무성의 등 부정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먼저다. 이번 학성동 새마을부녀회의 캠페인이 전국적인 범국민 운동이 되어 우리나라가 아기울음소리가 들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아기의 울음소리가 크게 들리는 사회, 다자녀 가정에 대한 배려가 넘치고,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이 되는 미래를 기대해 본다.

저출산 고령화시대의 대응을 위한 한자녀 더 갖기 운동이 새마을 부녀회를 중심으로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최근 울산 중구 학성동 새마을부녀회는 회원들과 주민,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학성공원 광장에서 한자녀 더 갖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최근 인구절벽,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의 증가, 울산인구의 유출 등 인구감소 문제는 국가와 지역을 가리지 않는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국가생산성과 관련되어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것이고, 안보, 국방 등 여러 분야에서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중구 원도심 주차난 해소, 옥교공영주차장 증축 준공식

양승현 기자



지난 7월 7일, 옥교동영주차장 증축 준공식이 있었다. 울산큰애기 야시장, 문화의 거리, 나눔장터, 푸드 트럭 운영으로 중구 원도심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부족해진 주차공간은 원도심 부활의 걸림돌이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중구에서는 옥교공영주차장을 기존 3층에서 5층으로 증축해 180면의 주차공간을 새롭게 확충했다. 총 574면의 주차면이 조성되어 하루 2천여대, 주말 3천5백여대 이상 차량들의 순환 주차가 이루어지면 원도심 주차난이 어느 정도 해결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인주차요금정산시스템을 도입하여 원도심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편의는 물론 주차요금 징수의 투명성 확보, 관리비용 절감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도심 재생사업과 울산시립미술관 건립 등 중구 원도심은 울산의 관광 중심으로 성장할 준비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특히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찾아 원도심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가장 먼저 반기는 공간, 원도심 중심에 위치한 옥교공영주차장은 과거와 현재가 함께 공존하는 성남동과 옥교동의 옛 명성을 찾을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다.

태화강대공원에서 만난 무궁화정원

양구희 기자

NEWS 3



태화강대공원에 무궁화정원이 생기면서 무궁화에 대해 알고 싶다는 생각을 울산 시민은 누구나 할 것이다. 나는 막연히 무궁화는 대한민국의 국화이고 오랜 기간 쉽 없이 핀다는 정도의 상식을 가졌었는데 세계적인 무궁화박사이신 심경구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 종류의 많음과 우리민족과 수 천년동안 함께한 민족의 꽃이라는 것을 알고 놀랐다.

무궁화는 환인의 아들 환웅이 천부인 3개와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서 배달국을 건국하신 후 하늘에 제사드리는 제단 주위에 심었던 꽃으로 천지화라고 불렀다 한다.

기원전 4세기 중국 춘추전국시대 기록된 지리서인《산해경》(山海經)에는 “군자국 재기북유훈화초조생모사=君子國在其北 衣冠帶劍 食獸使二大虎在旁 其人好讓不

爭 有薰華草 朝生夕死”라 기록되어 있는데, 북쪽에 있는 군자국의 무궁화는 '아침에 꽃이 피고 저녁에 꽃이지는 훈화로 소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기록이 있기 훨씬 오래전부터 우리와 함께 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동북아시아에 분포하면서 해발 500m이하의 위치에 자생하며 거친땅이라도 가리지 않고 잘 자라는 것을 보면서 배달국 천지화 설화는 설화가 아닌 진실된 역사임을 느낀다.

무궁화꽃은 일출과 동시에 피고 일몰에 오므라지면서 통꽃으로 떨어진다. 개화기간은 짧지만 빛을 마중하러 나왔다가 빛이 사라질 때 생애를 마치는 빛바라기의 품성을 가졌다. 자신이 앉아있던 꽃자리를 다음 꽃에게 내어주는 것에서 겸양함을 보고, 나팔꽃 봉오리처럼 오므라져 조용히 떨어지는 자태에서 고귀하고 처연한 품격이 느껴진다.

무궁화는 매년 6월 하순부터 10월 초순까지 100여일 동안 하루 50~100송이씩 총 2,000~3,000송이의 꽃을 피워 아름다움을 드러내니 신라 시대 부터 자연스레 근화향(槿花鄕=무궁화의 나라)으로 생각했나보다. 약성 또한 뛰어난 혈액순환, 이뇨작용, 기관지천식, 간질, 부인병, 비만, 이질, 무좀 등에 뛰어나다고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 증상별 사용방법이 적혀있다고 한다. 빛과 함께하는 신성함과 생명을 구하는 약성이 함께 하는 존귀한 특성을 가졌으니 이 꽃으로 천제의 제단을 꾸민 배달국 선조들의 해안이 미루어 짐작된다.

태화강대공원의 무궁화정원은 2017년 봄에 조성한 공원으로 전세계의 무궁화 250여종 중에서 100여종이 심어져 있는데 흙꽃으로된 백단심계와 홍단심계를 우리나라꽃이라고 한다. 전체적 모양은 한반도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울산 지명이 붙은 무궁화가 11종류나 있어서 나라사랑과 향토사랑을 이끌어내는 귀한 장소이기도 하다.

수운 최제우유허지를 찾다

김정숙 기자

NEWS 4



유난히 화창한 어느 날, 잠깐 시간을 내어 산책할 겸 혁신도시 끝자락에 위치한 최제우 유허지를 한번 찾아가 보았다. 원유곡길 입구로 들어서니 산책로가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천천히 오르다보면 조용하고 아늑한 곳에 발길이 머무르게 되는데 바로 울산광역시 기념물 제12호로 지정된 수운최제우유허지(水雲崔濟愚遺墟址)다. 동학의 창시자인 수운 최제우 선생이 초가집을 짓고 수도생활을 한 곳이다.

1855년 여기에서 천서를 받아 사흘 만에 깨우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천도교에 정진하였다고 한다. 여시바위골로 불리우던 이 자리는 천도교에 성지로

전해오다가 1997년 1월에 경상남도 기념물 156호로 지정되었으며 그해 10월 울산광역시 기념물 제12호로 조정되었다. 정자와 기념비가 세워져 있고 사계절 자연이 아름다우며 역사와 유래가 깊은 유적지다.

원도심에서 10여분 거리로 누구나 쉽게 갈 수 있으며 건강을 위한 힐링의 코스로 적합한 숨어 있는 보물 같은 곳이라고 이야기 하고 싶다. 가까운 주말 민족정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수운 최제우 선생의 발자취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25만 구민 곁에서 늘 소통하며 개원 20주년을 맞이한 ‘울산 중구의회’

- ‘최초’라는 수식어 통해 선진의회 위상 높여온 중구의회 -



‘함께하는 열린의정,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몸소 실천해 온 울산 중구의회(의장 서경환)가 개원 20주년을 맞았다.

중구의회는 지난 7월 15일 개원 20주년을 기념하며 의원과 사무국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출한 기념식을 열고 25만 중구민과 함께해 온 지난 20년의 시간을 돌아보며 반성과 회고의 시간을 갖고 새로운 미래를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난 1997년 7월 15일 제1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초대의장 김무열)가 개원한 이래 98년 제2대, 2002년 제3대, 2006년 제4대, 2010년 제5대를 거쳐 2014년 제6대 중구의회가 출범, 올해로 3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중구의회는 지난 20년간 ‘최초’라는 수식어를 통해 울산지역 5개 구·군 기초의회 중 단연 모범적인 선진의회 위상을 높여왔다.

제5대 의회 시절이던 지난 2012년 11월 울산 기초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했다.

기존에는 당초예산안과 추경안 등의 심사를 앞둔 시점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검토기간 부족 등으로 주먹구구식 심의란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중구의회는 예결위 상설화를 통해 예산심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는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앞서 제4대 의회 시절이던 지난 2008년에는 지역 최초로 ‘의원 일일 민원담당제’를 도입, 지금까지 9년간 지속적으로 운영중이다.

의원 일일 민원담당제는 전 의원이 비회기 중 윤번제로 출근해 민원상담 및 처리 업무를 보는 과정으로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접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해 의정활동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민원담당제는 중구의회가 처음 도입한 이래 울산광역시의회와 남구의회 등 울산지역 타 광역·기초의회에서도 잇따라 도입, 지금까지 시행하는 등 선진의회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중구의회는 또 본회의 중 구정질문을 기존 ‘일괄질문, 일괄답변’에서 벗어나 ‘일문일답’ 방식을 도입(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의2), 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시켰다.

이 밖에도 중구의회는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 의회운영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 활동하는 한편 의정 자문 기구 중 하나인 ‘의정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12년째 운영하고 있다.

개원 3주년을 맞이한 제6대 중구의회는 지금까지 297건의 안건(조례·규칙 209건, 예산안 18건, 승인·결의 55건, 기타 15건)을 처리, 의원 1인당 평균 의안처리건수도 27건으로 울산지역 타 기초의회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

이 밖에도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입법과 의결은 물론 구정 전반에 대한 견제 및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과 구민의 성원에 힘입어 중구의회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방의회 청렴도 전국 1위’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중구의회 서경환 의장은 “우리 주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정책과 사회 인프라 구축, 생활밀착형 제도 도입은 거의 모두 기초의회를 거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처럼 중요한 역할과 기능 수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초의회에 대한 낮은 인지도는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서 의장은 이어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선 그 중심인 지방의회가 제구실을 다해야 하고 이는 결국 우리 기초의원들의 몫”이라며 “약관의 성년으로 거듭난 중구의회는 주민을 위한 봉사와 헌신의 초심으로 의정혁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울산 중구의회, 3,291억7,800여만원 규모 추경예산안 확정

- 제198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안 심의·의결에 노력 -



울산 중구의회(의장 서경환)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확정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울산 중구의회는 지난 7월 18일 열린 제19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총 3,291억 7,841만원 규모의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2,932억 200여만원보다 366억 7,155만원(12.5%) 늘어난 규모다.

중구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본 심사를 통해 중구평생학습관 시설보강 4억 3,800만원, 청사시설물 환경개선 7,100만원, 문화관광도시 이미지구축 캠페인 5,000만원, 전통시장 및 야시장 이용 활성화 홍보비 4,400만원 등 6억 9,5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초점을 뒀다.

이와 함께 이번 제198회 임시회에서는 강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김순집 의원이 대표 발의한「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병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12건의 안건도 의결했다.

서경환 의장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은 우선 편성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 심의에 힘써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우리 중구 예산이 3,000억원을 넘는 만큼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중구발전에 토양이 되는 사업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울산 중구의회, 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확대추진에 대응방안 마련

- 울산광역시 구군의장협의회와 기자회견 갖고 공동대응방안 모색 -



울산 중구의회 서경환 의장을 비롯한 울산지역 5개 구·군의장협의회가 울산광역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구·군 확대 추진에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울산광역시 구·군의장협의회는 지난 7월 26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구·군 확대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구·군의장협의회는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관련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혼선규정에 따른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조례를 정비한다는 명목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비민주적 행태”라고 지적하고 “무엇보다 공문화 과정 등 사전 논의 없이 시의회가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행정사무감사 확대는 주민 대의기관인 기초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무시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군의장협의회는 시의회의 조례개정 내용에 대해 ▲위임사무의 기준 및 범위 불명확성 ▲광역·기초의회 간 갈등 유발 및 기초의회 고유의 기능과 역할 위축 ▲자치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 역행 ▲이중감사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중구의회 서경환 의장은 “기초의회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충실히 수행중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무를 시의회가 할 경우 중복감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기초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위축되는 부정적 결과로 이어진다”며 “중구의회를 비롯한 5개 구·군 의회는 시의회의 조례개정을 반대하는 성명서 채택과 결의안 발의 등 지속적인 공동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PyeongChang 2018™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Olympic Winter Games PyeongChang 2018
2018. 2. 9 - 2. 25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Paralympic Winter Games PyeongChang 2018
2018. 3. 9 - 3. 18

입장권 Tickets

Get Your Tickets and Share the Passion
당신의 열정을 대화참여로 보여주세요!

www.PyeongChang2018.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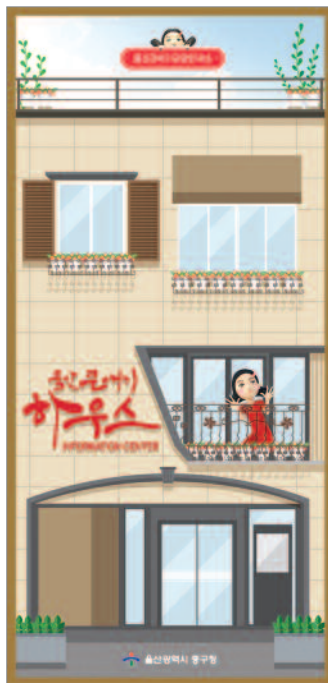


반다비
Bandabi



수호랑
Soohorang

Passion. Connected.
하나된 열정



울산문화기하우스 캐주얼 기념품



울산문화기하우스 호텔 소개



울산문화기하우스 캐주얼 기념품



ULSAN KEUNAEGI



PROFILE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거리 28 T. 052.296.9191
특징: 울산광역시 문화의거리 28 T. 052.296.9191
특징: 울산광역시 문화의거리 28 T. 052.296.9191

오시는길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거리 28 T. 052.296.9191

역사로 살펴보는 선거권 이야기

선거권은 민주주의의 핵심. 선거권 확대의 역사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지만, 이번 민주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한 헌법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은 선거권 확대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선거권의 확대를 통해,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

세계 여성 투표권 도입 연도

미국	영국	프랑스	대한민국
1907년	1918년	1944년	1948년

모든 국민이 투표권을 갖게되기까지의 역사

- 1789 프랑스 | 라부아지에가 "인생의 두 주" "자유, 평등, 박애"를 외치며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다. 그 후 "모든 국민이 투표권을 갖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아니라 "모든 성인 남성"만 투표권을 갖게 되었다.
- 1800 영국 | 제1차 대혁명 "선거권은 생명의 길은 구름의 길이다" 제1차 대혁명 이후, 영국은 선거권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아니라 "모든 성인 남성"만 투표권을 갖게 되었다.
- 1848 프랑스 | 7월 혁명 "모든 국민이 투표권을 갖는다" 제1차 대혁명 이후, 프랑스는 선거권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아니라 "모든 성인 남성"만 투표권을 갖게 되었다.
- 1893 미국 | 제1차 대혁명 "선거권은 생명의 길은 구름의 길이다" 제1차 대혁명 이후, 미국은 선거권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아니라 "모든 성인 남성"만 투표권을 갖게 되었다.
- 1900 독일 | 제1차 대혁명 "선거권은 생명의 길은 구름의 길이다" 제1차 대혁명 이후, 독일은 선거권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아니라 "모든 성인 남성"만 투표권을 갖게 되었다.
- 1918 영국 | 제1차 대혁명 "선거권은 생명의 길은 구름의 길이다" 제1차 대혁명 이후, 영국은 선거권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아니라 "모든 성인 남성"만 투표권을 갖게 되었다.
- 1928 프랑스 | 제1차 대혁명 "선거권은 생명의 길은 구름의 길이다" 제1차 대혁명 이후, 프랑스는 선거권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아니라 "모든 성인 남성"만 투표권을 갖게 되었다.
- 1944 미국 | 제1차 대혁명 "선거권은 생명의 길은 구름의 길이다" 제1차 대혁명 이후, 미국은 선거권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아니라 "모든 성인 남성"만 투표권을 갖게 되었다.
- 1948 대한민국 | 제1차 대혁명 "선거권은 생명의 길은 구름의 길이다" 제1차 대혁명 이후, 대한민국은 선거권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아니라 "모든 성인 남성"만 투표권을 갖게 되었다.

1948 우리나라 최초 제헌국회의원선거

선거인 총수의 95.5% 투표율

부흥선거, 병동선거, 지방선거, 헌법선거

1965 제헌 60주년 기념

헌법 선거권을 위한 87km의 행진

1966 제헌 60주년 기념

헌법 선거권을 위한 87km의 행진



The poster features a collage of three Polaroid-style photos at the top: a traditional Korean palace (Gyeongju), a dense bamboo forest, and a large crowd of people. A silver digital camera is positioned on the right side. The background is a light blue sky with a yellow sun or moon. At the bottom, a hand holds a Polaroid photo of a festival scene with a traditional building and many people.

2017 울산 중구 사진 공모전

접수기간
10.1.
10.20.

문화 관광도시, 울산 중구에서 우수한 관광사진을 이와 같이 공모 하오니
사진 동호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응모방법

접수기간 2017. 10. 1. ~ 10. 20.

응모자격 제한 없음

출품수 1인당 3점 이내

촬영장소 울산광역시 중구일원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 (울산중구 문화관광 홈페이지)
http://www.junggu.ulsan.kr/tour
신청서, 동의서, 사진파일 업로드

- ※ 최근 2년 이내 찍은 디지털 사진으로 반드시 출품자 본인이 촬영한 작품
- ※ 최소 3,500픽셀(긴쪽) 이상의 JPG 파일

심사·발표 및 시상

심사발표 2017. 10. 30(월)한 예정
※ 심사결과는 개별통지, 울산광역시 중구 홈페이지 게재

시상전세 2017년 11월 중

시상내역

구분	작품수	상금
최우수상	1점	200만원
우수상	3점	각 100만원
장려상	5점	각 50만원
입선	20점	각 10만원

유의사항

- ★ 입상작품의 저작권권 일체(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을 포함)는 울산 중구청에 귀속되며, 울산중구청은 이를 제3자에게 유상 혹은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 모든 응모작품은 초상권, 저작권권 및 저작재산권 등 기타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출품자에게 있으며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 명의로 출품한 작품, 타 공모전 입상작, 합성 및 조작, 과도한 보정, 출품규격 미달 사진은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입상이 취소됩니다.
- ★ 출품사진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상작품은 전시회, 책자발간, 사진갤러리 및 각종 홍보물 제작에 사용됩니다.

문의사항 중구청 문화관광실 T. 052) 290-3694